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 현황과 규제변화

채원영 연구원

201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개혁안(C-ROSS)을 전면 시행함.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3개사(시장점유율 76%)의 요구자본을 분석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150%) 미만인 회사의 경우 시장위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및 투자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유도하고 있음

- 201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개혁안(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전면 시행함
 - 이에 A.M.Best는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3개 생명보험회사¹⁾의 요구자본 변화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음²⁾
- 2015년 2월 실시된 유니버설보험 예정이율 상한 폐지로 대다수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유니버설보험 등 고수익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여 요구자본 중 시장위험액(금리위험 포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상위 13개 생명보험회사 중 지급능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의 경우 시장위험액이 전체 요구자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위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 이러한 회사는 2016년 말 기준 비채권자산(non-fixed income)의 비중이 40%를 초과해 투자포트폴리오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시장위험 요구자본이 큰 회사는 고수익 상품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China Life, Ping An Life, CPIC, Anbang Life, NCI, Hexie Health, PICC Life, Funde Sino, China Taiping Life, Taikang Life, CCB Life, Huaxia Life, Sunshine Life(이상 13개 생명보험회사)

2) A.M.Best(2017. 10. 18), "How Chinese Life Insurers Need to Adjust to the New Regulatory Reality"

〈표 1〉 요구자본(Risk Capital) 구성³⁾

구분	2016 1/4		2017 1/4	
	< 150% ¹⁾	> 150% ²⁾	< 150%	> 150%
신용위험	4%	16%	6%	17%
보험위험	8%	19%	11%	20%
시장위험(금리위험 포함)	87%	66%	82%	64%

주: 1) 총지급여력비율(comprehensive solvency ratio) 150% 미만, Anbang Life, Huaxia Life, Qianhai Life, Fende Sino

2) 총지급여력비율 150% 초과, China Life, Ping An Life, CPIC, New China Life, PICC Life

3) 상관계수항목 조정 전 수치임

자료: A.M.Best(2017, 10, 18)

■ 이에 상품 및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정량적 위험 분산(quantitative risk diversification) 및 특별 손실흡수효과(special loss absorption effect)를 높여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낮출 필요성이 높아짐

- 정량적 위험 분산 효과는 보험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총요구자본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포트폴리오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얻을 수 있음
 -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위험액 비중은 60~80%로 그 집중도가 높아 리스크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 효과가 적음
- 특별손실흡수효과는 보험회사가 각기 다른 스트레스 시나리오하에서 유배당 생명보험의 배당 및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비보증 구성요소 조정을 의미함
 - 특별손실흡수효과가 상위 13개 생명보험회사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난 생명보험회사는 최저 비중이율이 없는 상품 비중이 높아 금리위험이 낮게 나타남

■ 이에 최근 CIRC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하였음

- CIRC는 2016년 9월, “생명보험 계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유니버설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3.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생명보험 감독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만기 5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 규모 관련 월별 통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 또한 2017년 5월, “생명보험 상품개발관리강화 조치”를 발표하여 유니버설보험을 특약으로 설계하는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함

■ 또한 CIRC는 투자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투자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장기투자를 유도함

- CIRC는 2017년 5월 보험자산 활용과 관련된 초과위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 투자배분, 초과 레버리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
- 또한 2017년 7월 CIRC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는 2018년 초에 시행될 예정임 **kiqi**